 금융위원회	<h1>보도자료</h1>				 금융감독원
보도		2019. 3. 7.(목) 조간		배포	2019. 3. 6.(수)
책 임 자	금융위 중소기업과장 홍 성 기(02-2100-2990)		담 당 자	이 지 현 사무관 (02-2100-2993)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 김 영 주(02-3145-6770)			이 종 오 팀장 (02-3145-6773)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장 박 상 춘(02-3145-7410)			박 상 현 팀장 (02-3145-7380)	

제 목 :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금리 동향 및 향후 계획

- ◆ 그간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고금리 부과 관행 개선을 적극 유도한 결과, 서민층의 금리부담 완화효과 가시화
 - '18년중 수신금리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지속 하락**하였으며, 고금리(20% 이상) 대출 비중***도 크게 축소
 - * 대고객 정기예금(12개월) 약정금리 평균 : ('18.1월) 2.44% → ('18.12월) 2.62% (0.18%p ↑)
 - ** 신규취급금리 : ('17.12월중) 22.5% → ('18.12월중) 19.3% (3.2%p ↓)
 - *** 신규취급 고금리대출비중 : ('17.12월중) 67.6% → ('18.12월중) 39.8% (27.8p ↓)
 - 이에 따른 이자 감소효과는 '18년중 880억원(연간으로 환산시 2,000억원~2,200억원)으로 추정
- ◆ 정부와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중금리대출 시장 활성화 및 금리산정체계 합리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

1. 그간의 금리합리화 추진 경과

- 정부는 제도적으로 고금리대출 취급유인을 억제하고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법규 개정 등 정책* 추진

- * ① 고금리대출(20%이상)에 대해 총당금 50% 추가 적립('17.6.28)
- ② 인센티브[†] 부여 대상인 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한을 20%로 규정('18.7.1.)
 - [†] 영업구역내 의무대출(개인·중소기업에 30~50% 이상) 관련, 중금리대출은 150% 반영
- ③ '18.4분기부터 민간 중금리대출 신규 취급분은 가계대출 관리대상에서 제외('18.5.25.)

□ 금감원도 법정최고금리 인하('18.2월)에 맞추어 금리 운용실태 공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금리 합리화를 적극 유도*

* ① 금리 운용실태 공개 ('18.7.31), ②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18.10.29)

† 약관개정 이후 신규취급 대출에 대해 최고금리 초과부분 자동 인하

③ 대출경로별 비교공시제도 도입('18.11.27), ④ 금리산정 체계 MOU 이행실태 점검('18.9~11월)

2. 가계신용대출 금리 동향

□ (평균금리) '18년중 가계신용대출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추세

○ '18.12월중 신규취급 평균금리는 19.3%로 '17.12월중 대비 3.2%p 하락 ('18년 잔액기준 평균금리는 21.0%로 '17년말 대비 2.2%p 하락)

- 특히 법정최고금리 인하 시점('18.2월)에 큰 폭으로 하락($\Delta 1.5\%$ p) 하였으며, 금리합리화 노력 등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하락추세 지속

○ 대출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 감소효과는 '18년중 880억원, 연간으로 환산시 2,000억원~2,200억원 수준으로 추정

□ (고금리대출 비중) '18년 월별로 신규 취급한 가계신용대출 중 20%이상의 고금리대출 비중은 큰 폭으로 지속적 하락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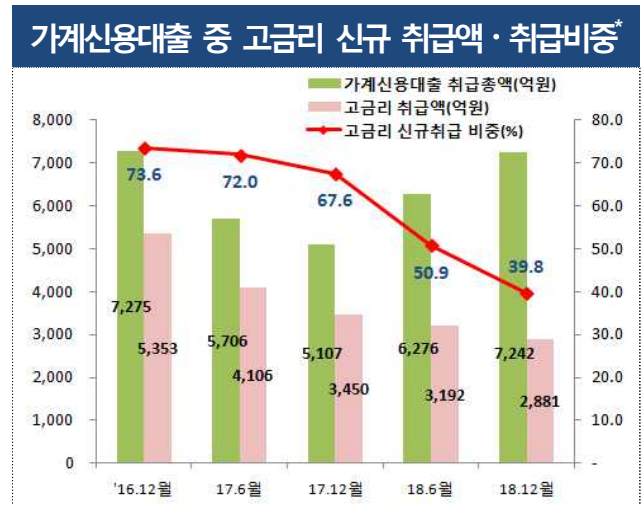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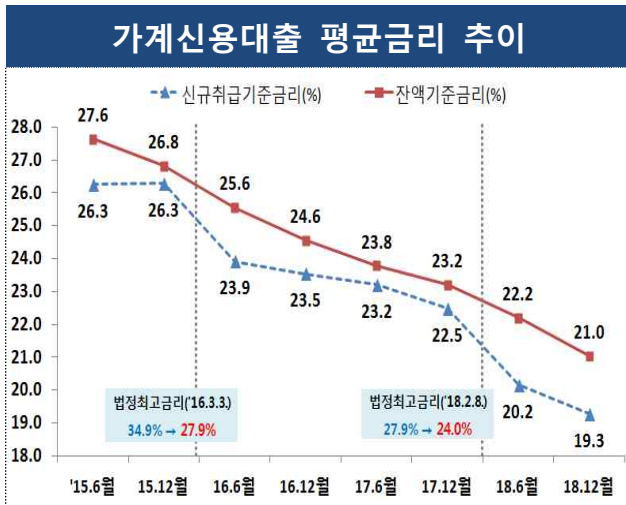
○ '18.12월 신규 고금리대출 비중은 39.8%로 전년 동월(67.6%) 대비 27.8%p 하락 (직전연도 하락폭(6.0%p)의 4.6배 수준)

※ 고금리대출 취급 감소에도 불구하고, 저신용자(7등급 이하)에 대한 신규 대출규모나 차주수는 큰 변동이 없음†

† '18년중 월평균 저신용 차주수(1.31만명)는 전년(1.39만명) 대비 소폭 감소($\Delta 5.5\%$)하였으나, 월평균 저신용자 대출액(1,132억원)은 전년(1,060억원)과 비슷한 수준 유지

○ 다만 대부계열 저축은행 등 상위사의 고금리대출 잔액은 여전히 많은 편

* '(첨부1) 가계신용 고금리대출 잔액 상위 20개사 현황('18년말)' 참조



* 월별 신규 20% 이상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액 / 월별 신규 가계신용대출액 비중

3. 향후 정책 및 감독 방향

◆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은행 등에 비해 금리산정체계상 아직 개선할 점이 있어,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중금리대출시장 활성화 및 금리산정체계 합리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

① 고금리대출 취급 억제, 원가절감 등을 통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유도

○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요건을 업권별 비용구조를 바탕으로 차등화*하여 중금리대출의 금리인하 유도 ('19.上, 감독규정 개정)

* [현행] 16.5%(공통) → [개선] 6.5%(은행)~16.0%(저축은행)

○ 고금리대출 취급시 예대율이 상승하도록 예대율 규제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고금리대출 취급 유인을 억제

*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 중 고금리(20% 이상) 대출에 가중치(130%) 부여

○ 모집채널 효율화* 등 원가절감을 통해 금리인하 여건 마련

* 모집인 등 의존 관행 개선을 위해 모바일 등 비대면채널 활성화 추진

②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지속 추진

- 대출금리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TF*를 통해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 개정 추진 ('19.上 예정)

* (활동 계획) 금리산정 체계 현장점검 결과 나타난 미비점 개선,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19.1월 발표)중 일부를 저축은행 업권 실정에 맞추어 도입 여부 검토 등

③ 금융소비자 알 권리 확대를 통한 시장내 자율적 금리경쟁 유도

- 주기적으로 고금리대출 과다 저축은행의 취급현황*을 공개하고 시장의 평가를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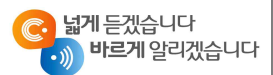
* 대출희망 차주가 저축은행 선택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제공

- 대출금리 원가구조 공시강화 등 금융소비자의 알권리 확대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첨부1

가계신용 고금리대출 잔액 상위 20개사 현황('18년말)

(단위 : 억원, %, 만명)

저축은행명 ^{주1)}	고금리대출 잔액	고금리대출 비중	고금리 차주 수	고금리 차주 비중	가계신용대출 잔액 평균금리	가계신용대출 신규평균금리 ('18.12월)
1 OK	18,174	84.6	23.6	86.8	23.9	21.2
2 SBI	11,881	54.1	10.1	66.7	20.4	19.8
3 웰컴	8,189	72.7	10.4	86.0	22.8	20.3
4 유진	6,042	72.8	6.6	82.9	22.1	19.0
5 애큐온	4,162	66.5	3.9	77.3	22.1	18.1
6 JT친애	2,753	31.9	2.8	47.2	19.1	15.7
7 페퍼	1,901	24.6	1.2	34.2	18.1	16.2
8 한국투자	1,833	73.1	1.8	82.7	21.4	18.4
9 예가람	1,052	62.4	2.0	75.9	21.9	20.4
10 고려	952	57.1	2.1	76.9	21.5	19.7
11 JT	924	26.3	0.7	37.2	18.6	17.3
12 모아	799	72.3	1.5	81.5	22.2	20.5
13 상상인플러스 ^{주2)}	733	57.6	1.5	88.3	21.3	16.8
14 대신	681	48.4	0.9	56.9	19.4	19.4
15 스마트	667	56.4	1.4	70.4	21.2	18.6
16 OSB	409	94.9	0.7	94.8	26.9	22.6
17 세람	370	49.3	0.7	71.7	20.1	18.8
18 상호	366	83.4	1.1	85.8	22.1	21.6
19 키움	327	42.9	0.6	51.0	20.0	19.6
20 머스트삼일	313	91.5	1.0	95.3	26.1	15.4
소계(20개사)	62,530	60.9	74.5	75.7	21.4	19.5
총계(79개사)	63,697	56.9	77.3	70.0	21.0	19.3

주1) 고금리대출 잔액이 높은 순

2) 舊세종 ('18.6.4.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으로 사명 변경)

1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금리 운용실태 공개('18.7.31)

- '18.5월말 기준 가계신용 고금리대출 잔액 상위 20개 저축은행현황 등을 공개하여 금리수준에 대한 고객과 시장의 평가를 유도
 - 일부 저축은행에서 차주의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무분별하게 20% 이상 고금리를 부과함에 따라
 - 수익성 지표가 은행권 보다 매우 높고 특히 가계신용대출을 주력으로 취급하는 일부 대형 저축은행은 업계 평균의 2배 수준
- * ROA('18.1분기) : 은행 평균 0.7%, 저축은행 평균 1.4%(SBI 2.8%, 웰컴 2.7%)

2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18.10.29)

-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는 경우 동 금리를 초과하는 기존대출의 약정 금리를 자동 인하토록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선
 - ※ (적용 예시) A고객이 약관 시행일('18.11.1.) 이후인 '18.12.31.에 연 24% 금리(만기5년)로 저축은행과 대출약정을 신규체결하고, 매년 7.1.에 최고금리가 연 1%p씩 2년간 2%p 인하된다고 가정하면,
 - ☞ A고객의 대출금리는 ('18.12.31.) 24% → ('19.7.1.) 23% → ('20.7.1.) 22%로 자동 인하

3 대출경로별 금리 비교공시('18.11.27)

- 금감원은 저축은행 고객들이 이자부담을 줄이고 거래 저축은행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공개*
 - * ①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금리 운용실태 공개('18.7.31), ② 가계신용대출 이자부담 절감 방법 안내('18.8.29), ③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가이드라인 시행('18.7.13) 등
 - 저축은행중앙회가 홈페이지(www.fsb.or.kr)를 통해 공시하고 있는 가계신용대출, 가계담보대출 등의 공시항목에 대출경로를 추가

4 금리산정체계 MOU 이행실태 점검('18.9~11월)

- '18.9~11월 기간중 14개 저축은행에 대해 대출금리 산정체계 MOU 이행실태 현장점검을 실시